

1117(목) 로마서 12-16장 그리스도인의 삶

“그러므로 형제들아,
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
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
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(12:1)”

그리스도인이 되면 정말 삶이 변할까요?
바울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,
변화의 전제로서 <그러므로>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
<그러므로>는 1-11장에 선포된 복음을 가리킵니다.
즉, 성도는 복음과 하나님의 자비에 기반해서만
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(12-16장)

<산 제물>은 내 전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며,
<마음을 새롭게 함>은 마음의 지배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.
<변화를 받아 헬모르페>는 속사람이 아주 변했다는 뜻입니다.
즉,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(6:3-5),
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만이 변할 수 있습니다(갈2:20).

좋은 모델,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은
의지와 결심,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.
의롭다 여김 받고 거듭난 <내>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.
<내>가 아니라 <예수(성령)>로 살아야 변할 수 있습니다.
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 <거듭난> 것입니다.

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
날마다 우리의 모범인 예수님을 닮아갑니다(8:29-30).
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(12:3),
공동체/국가/이웃/일상/관계들이 조정되어 갑니다(12-26장).
성령께서 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쫓게 하시며(15:5-6)
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(8:28).

나는 새로운 삶, 변화된 삶을 소망합니까?
❶ 스스로 새로운 사람, 변화된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까?
❷ 날마다 빚어 가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따르고 있습니까?